

새로운 목소리



유민희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안산시의회의원선거 안산시 마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2	국민의힘	유민희	여	1989.09.13 (36세)	자영업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재학	(전) 국회의원 비서 (전)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50,806	32,350	△83,156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장녀:없음	병역의무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세금 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7,618	없음	없음	- 해당자료없음
후보자	1,091	없음	없음	
배우자	6,527	없음	없음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언제나 북적이고 활기차던 안산의 전성기를 피부로 느끼며
안산에 대한 자부심을 품은 채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자주 안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살고 싶은데 안산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주말에 즐기거나 물건을 사기도,
차가 없다면 이동하기도 애매하고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멀리간 것도 아닙니다. 안양, 수원, 화성.
도시의 핵심 기능을 갖고 행정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급하여 주민들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의원은 거창한 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진영을 논하고 정세를 논하기엔 바쁘게 일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의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짚고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동네 안산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안전의 고잔동

- 고잔동 재건축신속추진위원회 설립
- 공영주차장 진출입정체 시간대별 분석
- 덕성초사거리 신호체계 변경추진
- 연립, 다세대주택 CCTV 및 가로등 전수 재점검
- 화정천 산책로 우천 후 신속정비



안산의 새로운 중심, 호수동

- 문화광장 좌우편 신호체계 변경 추진
- 학원가 주정차 정체 시간별, 요일별 분석
- 상권 골목별 애로사항 청취
- 상권 심야, 주말 환경미화 시간 탄력적 운용
- 호수동 아파트 연합 소통의 날 추진
- 신안산선 호수역사 편의시설 주민의견 청취

중앙동

중앙역

중앙을 중앙답게 중앙동

- 평일 중앙동활성화 TF 구성추진
- 고층 점포 공실방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진
- 중앙역 지하도 주변 환경정비
- 예술대학로 교통흐름 저해 신호체계 분석
- 시그니처중앙 준공 전 안전환경 점검

삶에 맞춘 약속

내 아이가 밝게 웃는 도시

수요응답형 통합스쿨버스 운영추진 / 늘봄·돌봄교실 인력확대 / 사교육단지 주변 환경개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공공계시물·도시 폰트 통일 / 엄마·아빠 교실 활성화, 안산페스타 확대 / 상권분석 TF 출범

중장년이 재도전할 수 있는 도시

중·장년형 스포츠문화시설 운영추진 / 재건축신속 추진위원회 설립 / 중년마음건강사업 확대

노년에도 안전한 도시

어르신 시기별 복지 알람 문자 발송 / 경로당 프로그램 재수립 / 공원 환경개선 / 어르신 시설 안전 구역 확대

유민희가 걸어온 길

학력 · 경력

- 화정초, 선부중 졸업
- 단원고 졸업 (전, 총동문회장)
- 한양대(서울)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재학
- 국회의원 비서 (전)
-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입주자대표회장 (전)
- 고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 고잔동 주민자치위원 (전)
- 안산시 청년정책위원 (현)
-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현)
- 국민의힘 안산시를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 (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자문위원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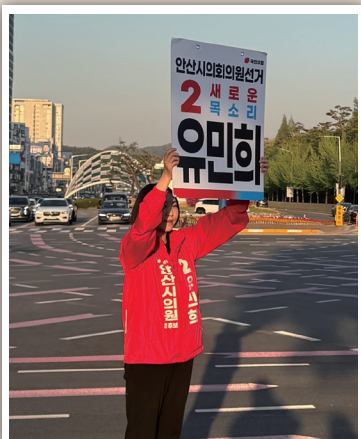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3일 (사전투표 5월 29일 ~ 30일)

선거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 1408호(고잔동, 더하이클레어)

연락처 0502-6682-8353

이메일 ymini0913@naver.com | SNS



thank to ♡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

철없던 초보 엄마의 미숙한 육아였음을 깨달은 순간,
너는 나의 예상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성장해 있었어.
엄마가 졸업한 단원고에서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동문으로서 팽목항을 오가며
세상의 비정함과 절절한 부모의 마음을 피부로 느꼈어.
그 수많은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기도 했거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 게.
재건축비대위, 국회의원 비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학교운영위원장까지 쉽 없이 달려왔더니
어느덧 우리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네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 “애기 좀 더 크고 나서 해.”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

지금 이 동네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아빠의 퇴근길이 조금 더 편하도록,
쉬는 날 없이 일하시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딸과 이 동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엄마는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한 번 내볼까 해.

너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다시 시작한 학업, 서울까지 먼 등굣길도
감사하게 다니면서 우리 딸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

엄마도 무섭고 두렵지만,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힘내볼게.
늘 응원해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



우리 동네를
잘 아는 후보



유민희 2